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7. 1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6/24~6/28)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서비스업 경기 호조로 인한 달러 강세에도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상단 제한되며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 이어 연준 당국자들의 비둘기 발언 이후 달러 약세 전환했으나 수급상 결제수요 우위에 하단 지지되며 소폭 하락
- 중반, 보우먼 연준 이사가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강달러 영향으로 상승 압력 받았으나 외환당국 경계심리가 재차 강화된 측면이 상단을 제한
- 후반, 급격한 엔저 압력에 동조화되며 1,39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고점 인식에 따른 반기말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에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고점 인식의 수출업체 매도 등 수급 우위 속 위안화 강세 영향 반영되며 1,370원대 중반 흐름으로 하락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제조업 PMI 등)에 따른 달러 지지력 흐름 등이 원화 강세를 다소 크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프랑스 총선 지행 등에 따른 유럽 정치 불확실성 현실화 가능성 등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가운데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재차 높아지는 원화 고점 인식 등이 수급상 달러 매도 강화에 영향을 미칠 측면 등이 1,390원 이상으로의 상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90	1,395	1,376.1	1,376.7	-11.6

예상거래범위

1,370원 ~ 1,390원



엔·유로화 동향 (6/24~6/28)



유로화 동향

- 주초, 프랑스 극우 정당 의원이 EU 재정규율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하며 정국 불안감 일부 완화됨에 따라 유로화는 강세 출발. 이어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통화정책 차별화가 부각된 측면이 유로화 약세를 견인
- 중반,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인하를 지지한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의 도비시한 스탠스에 약세 지속
- 후반, 미국 고용 관련 지표와 1분기 GDP가 안전한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강달러 완화되며 소폭 반등. 이어 주 후반, 미 PCE의 시장 예상 부합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 속 강세 흐름 이어진 가운데 점차적 강세 축소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92	1.0746	1.0666	1.0714	+0.002



엔화 동향

- 주초,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으로 인한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엔화 가치 반등하며 출발. 이어 추가 긴축 여지를 열어둔 연준 이사의 매파 기조에 달러 강세 보이며 약세 전환
- 중반, 한일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 등 경계감 강화에도 엔화 약세 압력 심화되며 달러당 160엔을 돌파
- 후반,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들의 연이은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PCE물가 데이터 발표 앞둔 경계심리 등에 추가 약세 시현. 이후 미국 PCE 물가 오름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둔화 흐름을 보임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반영 속 강세 전환. 하지만 미 제조업 지표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 영향 등으로 달러 지지력 강화에 따라 엔화는 소폭 약세 전환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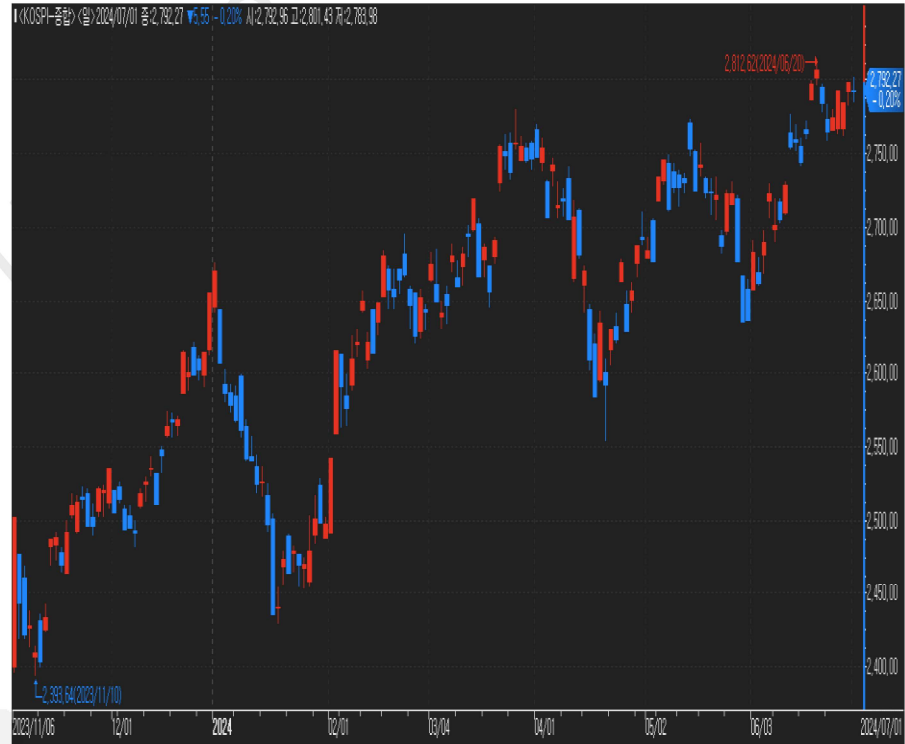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9.8	160.9	158.7	160.9	+1.0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24~6/28)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S&P 서비스구매자지수와 제조업 PMI지표 등이 견조했던 반면,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엇갈린 경기 시그널을 반영하며 미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그간의 강세를 소폭 되돌림 하며 상승 흐름 출발 이어 장중 재료 부재 속에 수급 영향 반영하며 소폭 상승 흐름 지속한 국면
- 중반 들어, 호주와 캐나다의 5월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영향 반영 속에 시카고 연준이 발표한 5월 전미활동지수가 0.18로 상승 및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매파적 금리 정책 지지 언급 등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 지속
- 후반 들어서는 시장의 특이 이슈 부재 속에 소폭 상승 흐름 나타낸 국고채 금리는 주 후반, 미 PCE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기대심리 반영 및 미 대선 토론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해소된 점 등이 미 국채시장 강세 견인하며 이를 반영한 국고채 금리도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증시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주요 AI 관련 종목 들의 큰 폭 조정 양상 등에 따른 영향 및 PMI 지표 호조 등에 따른 달리 강세 요인 강화 등을 반영하며 하락 출발. 이어 뉴욕 증시에서의 차익실현에도기관투자자의 자동차 등 대형주 업종에 매수 강화 등으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연준 당국자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언급 등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으나, 뉴욕 증시 엔디비아 상승 전환 등에 따른 반도체 업종 상승 흐름 속 외국인 순매수 강화 등으로 상승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뚜렷한 방향성 모멘텀 부재 속에 업종,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나타낸 이후, 주 후반, 미 PCE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우세한 흐름 속에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지며 마감